

우회전 중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

한국도로교통공단, “보행자 보호 운전” 당부

-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해야
- “서행하며 주변 살피는 습관이 보행자 안전 지켜”

한국도로교통공단(이사장 김희중)은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 등 보행자 보호 운전 실천을 당부했다.

우회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(2021~2025년)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 9천여 건으로, 이로 인해 305명이 사망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구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사고(건)	19,235	3,893	4,092	4,130	4,062	3,058
사망(명)	305	77	58	63	65	42
부상(명)	19,649	3,963	4,172	4,250	4,144	3,120

<표> 최근 5년간(2021~2025년)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

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. 이어 우회전을 마친 뒤 진입한 도로의 횡단보도, 이른바 ‘두 번째 횡단보도’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.

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은 차량이 접근하는 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. 또한 버스·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구조적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전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.

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“우회전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곧 보행자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서행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”며 “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

<그림>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(제공=한국도로교통공단)

담당 부서	혁신기획본부 소통홍보처	책임자	처 장	이지영 (033-749-5080)
		담당자	과 장	박지현 (033-749-5087)

